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개사화

金正必*

<目次>

I. 서 언	2.3 어순의 비순차성과 개사화
II. 시간성원칙과 의미의 허화	III. 개사의 어법기능과 시간성 제약
2.1 의미의 허화와 개사의 범주	3.1 동태조사의 시간성 제약
2.2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V1(제 동사)의 허화	3.2 중첩과 개사의 시간성 제약
	IV. 결 어

I. 서 언

한어에서 동사의 기능변화를 통한 ‘개사’의 출현은 일종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¹⁾의 과정으로, 동시에 의미의 허화²⁾를 동반하게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사

- 1) 역사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언어에서 본래 상용되지 못하고 짜임새가 느슨했던 언어형식이 모종의 환경에서 사용빈도의 증가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새로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대적 안정성을 지닌 구문구조는 다시 문법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면 일종의 어법표지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허화’ 혹은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고 한다.(Hopper & Truagott(1993:45) 다시, 인지언어학의 해석을 빌리면, ‘본래 내용어(동사, 명사 등 어휘적 내용을 갖는 요소)였던 성분이 구문에서의 역할에 따라 통시적으로 기능어(어휘적 내용이 희박한 조동사, 전치사, 조사 등)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임지룡 등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한국문화사, 2004) p.68.
- 2) 허화란 본래 동사, 명사 등 어휘적 내용을 갖는 요소(실사)였던 성분이 구문에서의 역할에 따라, 기능어(어휘적 내용이 희박한 조동사, 전치사, 조사 등)로 활용되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어휘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된다. 실사(내용어)에서 허사(기능어)로 품사전이가 일어나는 의미의 '허화'과정은 통사와 공사의 두 언어학 영역을 포괄하는 언어의 변이현상으로 품사의 전환, 구조의 분화를 통한 새로운 구조의 형성 등의 어휘·통사적 특징이외에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담화·화용론적 특징 등의 다양한 언어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품사와의 품사적 대비나 구문의 대비를 통한 개사의 성질이나 기능, 그리고 개사의 하위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개사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미상의 변화나 구조상의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³⁾, 이러한 의미의 허화나 구조상의 불균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동사의 '시간성'⁴⁾ 상실을 개사화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삼고,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⁵⁾과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石毓智(1995)의 연구방법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개사화의 세 가지 단계(동사 → 부차적(次要) 용법 → 개사)에서 강조하는 '부차적(次要)'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보이지 않지만, 동사의 시간성 상실이 '시간의 일차원성'에 근거한다는 원론적 관점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傅雨贤 等(1996)에서는 동사의 개사화 과정을 의미(词义)의 발전과 변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徐通锵(1990)이나 林华东·蒋艳(2005)에서는 '구조의 불균형성'을 변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4) 시간은 사물이나 사건의 변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의 계기적 개념으로, 시점과 종점을 지닌 직선적 시간구조를 형성한다. 언어표현에서의 '시간성'은 동사가 구문에서 이러한 시간적 속성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대체로 '상태, 과정, 사건' 등으로 파악한다.

5)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이란 인간이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 다양한 동작을 파악함에 있어, 단지 그 중의 하나의 운동속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다른 여타의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구문에서 술어의 서술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石毓智(1995)는 "동사가 특수한 통사위치에 서게 되면 잠시 시간정보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石毓智(1995), (2001) 참조

사실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은 구문에서 기능하는 성분 자체의 형태변화나, 접사나 어미의 첨가를 통해 그 낱말의 문법성을 나타내는 언어(굴절어나 교착어 등)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연동식’이나 ‘겹어문’ 등의 특수구문을 인정하는 한어의 현재적 상황에서는 이 원칙의 전면적인 적용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어처럼 어떤 성분이 구문에서 기능의 변화에 따른 형태상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동사의 분포위치나 의미관계를 통해 특정성분을 무조건 개사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본문에서는 ‘개사화’의 주요인을 동사의 허화를 일으키는 ‘시간성 상실’과 이러한 ‘시간성 상실’을 유도하는 근원인 ‘시간의 일차원성’에 있음을 하나의 가설로 설정한다. 둘째, ‘연동식’ 등 한어의 특수구식을 형성과 연관되는 ‘시간순서원칙’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에 순행하는 순차어순과 이와 반대로 역행하는 비순차어순을 비교함으로써 ‘시간의 일차원성’의 적용여부를 고찰해본다. 셋째는 개사의 ‘시간성’ 유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동태조사의 부가와 중첩의 어법방식을 통해, 개사의 시간성 제약을 살펴봄으로써 동사의 ‘개사화’와 시간성 원칙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시간성 원칙과 의미의 허화

2.1 의미의 허화와 개사의 범주

구문에서 특정성분의 의미가 ‘허화’되는 것은 통시와 공시언어학의 영역을 포괄하는 언어가 가지는 다양한 현상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이유만으로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동사의 허화를 통한 개사의 출현은 단순히 어휘의 허화가 그 출발점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통한 기능의 변화

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선 개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 (1) 老师在黑板上写字。→ *老师在黑板上。
 (2) 他在家吃饭。→ 他在家。

傅雨贤 等(1996)에서는 위의 예문에서 왼쪽 두 개의 VO구조에서 오른쪽에서처럼 후반부의 VO를 제거하여 구문이 성립되지 않으면 ‘개목구조’(예문1)이며, 예문(2)의 오른쪽에서처럼 단독으로 구문이 성립하면 ‘在’는 개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하지만, 예문(1)의 오른쪽 구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在’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치논리에 근거한 의미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분석의 모순은 다음의 구문을 통해 드러난다.

- (3) 他在家做饭。
 (4) 他在家吃饭。

만약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아래의 예문(3)과 예문(4)에서의 ‘在’는 모두 ‘他在家’라는 완전한 구문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동사로 간주해야 하지만, 예문(3)과 예문(4)는 완전히 서로 다른 구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他在家做饭吗?’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 ‘重音’의 선택인데, 만약 ‘做’에 ‘重音’이 오면 ‘做/不做’는 되지만 ‘在/不在’는 안 되기 때문에 ‘在’는 개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예문(4)에서는 오히려 ‘重音’을 ‘在’에 두고, ‘在/不在’는 성립함으로 ‘在’는 개사가 아닌 동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문(1)에서는 ‘在’에 ‘重音’이 오면 안 된다던가 혹은 ‘在’에 ‘重音’이 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이러한 주장 또한 ‘在/做’ 및 ‘在/吃’의 이치논리나 습관상의 인식

6) 傅雨贤 等(1996)<现代汉语介词研究>(中山大学出版社) pp.10-11, 참조

에서 비롯된 의미상의 문제를 기능상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사의 품사문제에 편중된 이러한 연구방법은 술어 후반부에 나오는 보어성의 개사(허화동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또 다른 중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林华东·蒋艳(2005)에서는 통사상의 불균형 현상이 개사 내부의 허화과정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면서, 'V+X+NP' 구조에서 X(개사)의 의미지향의 차이에 의해 X의 기능과 성질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⁷⁾

(5) 我在八里之外就闻<到>了香味了。

(6) 两个小伙子张罗着把对联贴<到大门的两侧>。

예문(5)와 예문(6)에서 '到'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술어동사의 특징에 따른 의미지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예문(5)의 '到'는 추향동사로 보어가 되어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고, 예문(6)에서 '到'는 개사로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설명에 근거해 보면, 예문(5)의 추향동사인 '到'는 앞의 동사에 의미지향을 하고, 개사인 예문(6)에서 '到'는 후면의 NP에 의미지향을 한다. 이 또한 다른 각도의 분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예문(5)의 '到'가 표시하는 동작은 '已然性'을 표시할 수 있지만, 예문(6)에서는 앞에 존재하는 술어 '张罗着'가 표현하는 지속성의 영향으로 여전히 '미연'의 상태를 표시함으로써 '贴'의 시간성이 '到'에서 완결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시간과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한어에서 어순의 중요성이나 구문정보가 나타내는 구조상의 결합 원칙 등을 통해 볼 때, 개사구의 동사 전후에서의 어법의미의 표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林华东·蒋艳(2005)에서 주장하는 의미지향은 대개

7) 林华东·蒋艳(2005) p.17, 참조 만약, 구문을 조금 바꿔 앞의 동사를 제거한다면, '那两个小伙子把对联贴到了<大门的两侧>'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동사 앞에 존재하는 개사는 ‘수반’의 특징을 지녀 후행하는 명사성분을 지향하고, 동사 이후의 ‘개사구’가 표시하는 것은 ‘결과와 상태’로서 개사의 의미가 지향하는 곳은 후행하는 명사성분이 아닌 개사에 선행하는 동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사 자체의 분석에서 벗어나, 개사가 유도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관계를 통해 술어에 선행하는 개사구와 후행하는 개사구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7) 他在城里住。

(8) 他住在城里。

위의 두 예문에서 나타나는 어순의 차이점은 ‘在’가 후행하는 장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예문(7)에서 상어로 기능하는 개사목적어가 표현하는 장소는 술어의 동작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을 형성한다. 반대로 예문(8)의 술어동사 뒤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개사목적어는 동작의 결과가 미치는 특정의 장소(살고 있는 지점)를 표시함으로써 장소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8)의 개사(8)는 보어의 통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어 다른 기타 보어가 올 수 없게 한다.

(9) 他在城里住。→ 他在城里住烦了。

(10) 他住在城里。→ *他住烦了在城里。

한어에서 보어는 동작행위의 결과나 그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에 연이은 시간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예문(9)에서처럼 개사구가 상어로서 동사 앞에 출현하여 동작행위의 배경이 될 때는 ‘시간과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보어를 첨가하더라도 어떤 제약을 가하지도

8) 정확하게 ‘개사’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동사로서 보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않는다. 예문(10)에서처럼 동작 후반부에 오는 ‘在’는 앞의 동사와 시간적 연결을 통해 보어로 기능함으로써 또 다른 보어가 오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1) 他背靠着门站在了那里。
- (12) 我看的书从我手中掉在了地上。
- (13) 他们将那个人放在了板车上。

위의 예문에서, 만약 존재동사 ‘在’를 단순히 개사로 보고 후행하는 장소를 배경적 범위로 본다면, ‘了’를 부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술어와의 의미관계를 통해서 보면, 각각의 동사(술어)가 표시하는 의미는 각기 다른 동작을 지시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在(了)’에 의해 동작의 방향이 종결점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V1(제1동사)의 허화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⁹⁾은 중심술어의 앞에서 부차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동사는 활용과정에서 ‘시간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서술능력을 상실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즉 ‘시간성’은 전체 구문에서 중심술어를 통해 표현되며, 구문(단문)에서 하나의 중심술어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구문의 ‘시간성’과 관련되는 어법적 특징으로 시제(tense), 相(동태:aspect), 敍法(mood) 등이 있는데, ‘시간성’을 상실한 개사는 이러한 시간성 표지와는 어울릴 수 없거나 혹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X+NP+V+NP’구문을 이중술어문을 간주하고 X와 V를 중심으로

9)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이란 인간이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 다양한 동작을 파악함에 있어, 단지 그 중의 하나의 운동속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다른 여타의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구문에서 술어의 서술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살펴보자. 한어의 이중술어문에서 기준시간으로 인정되는 중심술어는 제2동사(V2)이며, 제1동사(V1)는 후행하는 명사성분(체언)과 개사구를 형성하여 상어로 기능하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X+NP'를 형성하는 '개사'는 동사의 허화정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구문에서 개사의 기능을 하게 된 이후에 기능화가 심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성분으로 전이된 '개사'로서 통사적 분포위치가 고정화되어 있으며 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⁰⁾ 둘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동사의 서술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술어와 개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개겸류사'로, 다른 환경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성질을 지닌다. 개사 연구는 전자에 대한 정확한 기능분류와 후자에 대한 경계(범주)의 설정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차원성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 한어에서는 대체로 앞의 동사구가 '기능화'¹¹⁾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주어+동사+목적어」의 기본구조를 지닌 영어와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영어의 이중술어문에서는 제1동사가 중심술어가 되고 제2동사가 명사형을 취하거나 관계절을 형성하여 사건 그 자체를 표현함으로써 시간이 아닌 공간적 성질(사건)을 띠게 된다.

- (14) a. She gave me an injection this morning.
 b.*She gave me injects(injected) this morning.
 (15) a. James made the TV work yesterday.
 b. James made the TV works(worked) yesterday.

10) 대체로 개사로만 기능하는 개사인 '被、把、使' 등은 분포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서법(綴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1) 물론 연동식에서 전술어 부분을 상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술어인 동사가 여전히 중첩이나 동태조사의 부가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는 개사구로 표현되는 상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石毓智(1995)의 설명에 의하면, 예문(14)의 ‘injection’은 비록 명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위를 대표하며 시간정보를 주요동사인 ‘gave’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구문의 주어인 ‘She’의 중요 행위는 모두 ‘injection’에 함축되어 있지만, 오히려 ‘gave’가 표현하는 시간성을 통해 ‘injection’의 동작행위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 예문(15)의 ‘work’의 동작행위 또한 ‘made’를 통해 그 시간성과 작업과정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구체적 행위를 지닌 동사가 오히려 명사형으로 변하여 시간, 수, 상(相)의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의 일차원성’의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즉 영어구문에서의 ‘일차원성’의 제약은 본래 시간성 특징을 지닌 동사가 비시간성을 지니는 명사형으로 바뀌어 시간정보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어의 ‘형식동사’에 대한 분석과 대비시켜 보면, 왜 한어에서는 여전히 제Ⅰ동사를 허화되는 것으로 파악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 (16) 对这些问题我们(有/进行)了研究。
- (17) 우리는 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18) 对生活上有困难的职工要加以帮助。
- (19)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실 ‘형식동사’의 문제는 유사한 상어를 통한 구문 확장의 특징을 지닌 한국어와도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위의 예문(17)과 예문(19)의 한국어 예문에서는 ‘연구’나 ‘도움’에 목적격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영어에서와 같이 체언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한어에서는 예문(16)에서처럼 동사 ‘有’나 ‘进行’에 동태조사 ‘了’가 부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Ⅰ동사를 기능화된 ‘형식동사’로 분석되고 있다. 예문(18)에서도 비록 ‘了’가 부가될 수 없지만, 여전히 동사 ‘帮助’는 주어지는 대상으로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지, ‘帮助’의 행위자체가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반부의 동사를 형식동사로 취급하는 것은 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유관념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주어진 '동개점류사'의 개사화 과정 또한 이러한 사유관념의 반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20) a. 他在家。(~에 있다) | b. 他在家看书。 |
| (21) a. 他已经到北京了。(~에 도착했다) | b. 他到北京去了。 |
| (22) a. 他老跟着我。(~를 따르다) | b. 他老跟着我逛街。 |
| (23) a. 他正在用刀。(~를 사용하다) | b. 他正在用刀切苹果。 |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왼쪽의 a그룹에서 술어로 기능하던 동사가 오른쪽의 b그룹에서는 모두 개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20)-예문(23)이 지니는 공통점은 모두 제1동사(V1)의 의미 중에서 밀줄 친 부분의 동작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 동작성은 모두 제2동사(V2)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위의 예문에서 괄호 속의 한국어 번역에서 밀줄 친 부분이 상실되어 나타난다. 즉 한국어에서도 예문(20)-예문(23)에서 왼쪽 a류의 서술어(괄호 속의 밀줄 친 부분)가 완전히 시간성을 상실하여 상어화 되고, a류 본래의 서술어가 표현하던 시간성은 b류의 서술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한어에서 형식동사나 개사에 대한 분석은 모두 전반부의 동사를 허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마도 사유체계와 이론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어법분석은 기능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유방식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한어에서 전반부에 위치하는 동사가 부차적 용법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어를 통한 구문 확장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개사에 대한 분석에서 개사구가 상어기능을 하는 것은 한국어와 구문 확장의 방법이 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어순의 비순차성과 개사화

이처럼 한어에서 개사는 특수한 통사적 분포위치를 통해 개사화가 된다고 설명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분포위치를 점유하는 제1동사(V1)가 제2동사(V2) 비해 비교적 쉽게 ‘개사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개사구가 한국어에서의 상어와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은 한어에서도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구문에서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술어는 하나로 구성된다는 원칙은 형태변화가 없는 한어어법의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 근원적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연동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어에서의 특수구식인 ‘연동식’은 오히려 ‘시간순서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연동식’에서 나타나는 사건발생의 시간순서가 순차적 어순을 지키고 있으며, 한어에서 형태구조나 통사구조 뿐만 아니라, 가정법이나 조건문 등의 복문에서도 항상 시간순서원칙(PTS)¹²⁾에 지배를 받고 있음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예를 들면, ‘贯彻并学习나 ‘解决并研究’ 등은 병렬구조에 속하지만 앞뒤의 성분을 도치할 수 없으며, ‘开门走出去打电话와 같은 연동구조도 *走出去开门打电话와 같이 도치하면 어긋나는 구문이 된다. 이러한 자연시간의 순환논리와 사건발생의 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어의 어순이 철저히 자연논리의 시간 구조를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 따라서 ‘시간순서원칙’

12) 시간순서원칙(PTS,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이란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통사성분이 각기 표시하고 있는 개념영역의 내적 상태에 대한 시간순서로, 汉语의 통사구조상의 특징은 시간순서원칙에 따라 그 어순의 규칙이 지켜진다. 戴浩一(1988)에서는 汉语의 통사구조상의 특징은 시간순서원칙(PTS,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의 규칙에 따라 어순의 안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戴浩一<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黄河译 1988년 제1기), 李英哲(1983) <汉语语义单位的排列顺序>, (《国外语言学》 제3기), 范晓<关于汉语的语序问题(二)>, 《汉语学习》(2001, 제6기) 등 참조

은 하나의 구문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상호 연계되어 있을 때, 어순이 표현하는 사건발생의 순서가 자연시간의 흐름에 배치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a. 张三上楼睡觉。

b. *张三睡觉上楼。

(25) a. 我们开会解决问题。

b. *我们解决问题开会。

위의 예문에서처럼, 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이중술어문에서 시간순서원칙에 순행하는 순차어순을 지니고 있을 때는 제1동사(V1)를 개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동식’이라는 ‘특수구식’의 형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6) 我送了一束花给她。

(27) 我买了一束花给她。

예문(26)과 예문(27)은 ‘동개겸류사’인 ‘送’가 제2동사(V2)에 위치함으로써 시간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동사 본래의 의미인 ‘주다’의 의미 또한 회복되었다. 두 예문의 제1동사(V1)는 비록 다르지만, 두 개의 예문이 모두 ‘연동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순서원칙에 의한 순차적 배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我给她送了一束花。

(29) 我给她买了一束花。

예문(28)과 예문(29)은 예문(26)과 예문(27)에서의 제1동사(V1)와 제2동사(V2)의 분포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비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예문(28)과 예문(29)에서는 제1동사(V1) ‘쌓을 동사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시간순서원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0) a. 张三到图书馆拿书。
- b. 张三拿书到图书馆。
- (31) a. 他到这儿坐公共汽车。
- b. 他坐公共汽车到这儿。

위의 예문(30)과 예문(31)에서 어순의 변화를 통해 a와 b가 표시하는 행위의 시간순서는 각기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순서원칙에 근거해 보면, 예문(30)의 ‘拿’와 ‘到’의 시간순서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대개 a류는 시간순서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b류는 시간순서원칙의 순차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a류는 시간순서에 역행하는 어순으로 제1동사(V1)는 개사화되고, 반대로 순행어순을 가지는 b류의 제1동사(V1)는 여전히 술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개사의 어법기능과 시간성 제약

개사가 동사로부터 독립되어 하나의 새로운 품사가 되었다는 것은 한어 학계에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한어에서 개사는 여전히 매우 특수한 품사로, 여전히 동사의 특징인 시간성의 형태표지를 대동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¹³⁾ 그러면 개사는 과연 어떠한 특수한 관계를 통해 시간성 표시의 형태성분과 동시에 출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제약을 가지는

13) 개사와 동태조사(대체로 ‘了’ 혹은 ‘着’)가 동시에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赵元任(1968)에서부터 출론 주장되어 왔다. 대표적인 동태조사를 대동하는 개사를 살펴보면, ‘了’를 취하는 것으로 为、除、(发)给、(挂)在、(转)向 등이 있고, ‘着’를 취하는 것으로는 跟、临、趁、冲、朝、向、对、沿、顺、照、按、凭、靠 등이 있다.

가를 살펴보자.

3.1 동태조사의 시간성 제약

만약 개사가 완전한 기능성분으로 문장성분이 아니고, 또 모든 동태조사가 ‘시간성’을 표시하게 된다면, 개사와 동태조사는 동시에 출현할 수 없어야 한다.

(32) 他跟小金散步去了。

(33) 他陪爷爷散步去了。

(34) 他到乐天百货买过衣服。

(35) 他去乐天百货买过衣服。

위에 주어진 예문들은 개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예문(32)과 예문(34)은 ‘跟’과 ‘到’는 일반적으로 개사로 분류되며, 예문(33)와 (35)는 ‘陪’와 ‘去’는 동사로 분류된다. 만약 허사의 일반적인 기능에 근거한다면, ‘跟’과 ‘到’는 중첩할 수 없으며, 동태조사를 붙일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跟’은 ‘陪’와 같이 동태조사 ‘着’가 부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为, 除’와 같은 개사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了’ 또한 개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태조사를 개사가 가지는 품사적 특징으로 간주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36) 为了职工能安心工作, 机关办起了托儿所。

(37) 除了下棋, 他还会打球。

石毓智(1995)는 예문(36)에서의 개사 ‘为了’와 술어 ‘办起了’의 시간관계가 $[x, a]+[a, b]$ 로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며, 예문(37)의 ‘除’ 또한 ‘계산에 넣지 않다, 제외하다’의 의미로 자연히 두 동사의 동작 행위시간이 교차하

지 않기 때문에 ‘了’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문(36)과 예문(37)을 통해 단순히 시간의 중복여부나 순차성이 개사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제1동사가 표시하는 시간은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시간을 나타냄으로써 제2동사의 물리적 시간과 ‘연동식’을 형성하기보다는 조건의 논리관계를 통해 맨 앞의 ‘为’나 ‘除’가 개사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어를 통해 ‘개사화’가 일어난 ‘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8) a. 小王正跟他散着步呢。
 b. 小王正跟着他散步呢。
 c. *小王正跟着他散着步呢。
 (39) a. 他陪老张逛着公园呢。
 b. 他正陪着老张逛公园呢。
 c. *他正陪着老张逛着公园呢。

예문(38)과 예문(39)의 c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은 적용하면, 진정한 의미의 차이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화용 초점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예문(38a)와 예문(39a)의 화용초점은 각각 ‘散步’와 ‘逛’에 있으며, 예문(38b)와 예문(39b)의 화용초점은 각각 ‘跟’과 ‘陪’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화용초점은 개사에 있으며, 술어는 여전히 제2동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0) 他正趁着大伙儿聊天的工夫看书呢。
 (41) 他正沿着湖边儿骑着自行车呢。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着’가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대등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어에서 동일한 시간에 나타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시간과정을 연결할 때는 대개 동태조사 이외에 시간부사나 접속사

등의 성분을 통해서도 연결된다. 특히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一边~一边’ 등의 구조격식은 동태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42) a. 他一边走路, 一边看书。
b. 他一边看书, 一边走路。

예문(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사 등의 구조격식을 통한 동시상황의 표현은 화자가 두 개의 동일 시점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묘사함으로써, ‘시간의 일차원성’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래의 예문에서 기능하는 ‘着’는 마치 동시상황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작행위의 시간과정을 표시하기보다는 동작이 행해지는 상황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 (43) 他喜欢躺着看书。
(44) 他笑着说。
(45) 他唱着歌进来了。
(46) 他手里拿着一本书走进教室。

위의 예문에서 ‘着’가 표시하는 것은 동작행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동작행위가 일정한 시간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동작의 이동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제1동사(V1)가 동태조사를 대동하고 있지만, 의미의 중심은 여전히 제2동사(V2)에 있다. 즉 제1동사가 표현하는 것은 술어의 동작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환경, 즉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着’가 표시하는 시간성은 정태적 특징을 지니게 되어, 비록 ‘笑’나 ‘唱’과 같이 동작성을 지닌 동사라고 하더라도 제2동사와 ‘연동식’을 형성하지 않는다. 즉 시간과정에서의 기점과 종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과정’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 (47) 吃着饭学习。
- (48) a. 吃了饭再学习。
 b. *吃饭再学习。
 c. *吃了饭学习。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着’는 동작의 지속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의 지속을 나타내어 술어동작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완료, 혹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了’가 오면 접속부사 등을 통해 앞뒤 문맥을 상호 조정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록 ‘了’는 ‘着’에 비해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개 ‘了’를 취하는 것(为、除、(发)给、(挂)在、(转)向 등) 중에서 술어의 앞에서 ‘了’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了’를 대동하는 ‘为了、除了’는 상어가 아닌 종속절을 구성한다. 뒤의 네 가지는 모두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작용할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중첩과 개사의 시간성 제약

중첩은 동사, 형용사, 양사 및 일부분의 대사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특징으로, 동태조사보다 더 강한 ‘시간성’을 표현한다. 동사중첩의 어법적미는 동작의 지속시간의 짧음이나 진행의 횟수가 적음을 표시한다.

- (49) 老四不好意思地笑笑, 退回到墙跟蹲下去了。
- (50) 见了大少爷只点一点头, 没说话, 倒是问了而少爷学堂的事。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중첩은 동작의 반복과 연관이 있다. 즉 예문(49)의 ‘笑’는 예문(50)의 点에 비해 지속적 동작을 표시하고 있지만 중첩형식의 응용은 ‘笑了笑’처럼 그 동작을 중간에 끊어 반복적인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첩은 시간성의 부여와 관련되어 개사의 시간성 상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과정구조에서 동사의 기능화는 통사구조상에서 시간성을 상실하는 것이지 동사 본래의 시간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동사가 개사의 위치에서 기능할 때는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시간과정을 표시할 수 없는 [-시간]의 의미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 (51) a. 他跟小王散步去了。
b. *他跟跟小王散步去了。
- (52) a. 他陪小王散步去了。
b. *他陪陪小王散步去了。
- (53) a. 他到上海买过衣服。
b. *他到到上海买过衣服。
- (54) a. 他去上海买过衣服。
b. *他去去上海买过衣服。

위의 예문에서 보다는 것처럼, 제1 동사는 그것이 개사로 간주되든지 혹은 ‘연동식’으로 간주되든지 간에 모두 중첩형식을 취할 수 없다. 비록 제1동사(V1)은 개사가 아닌 동사로 인정받는 예문(54)의 ‘去’ 또한 중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접속부사나 연사를 통해 제1동사와 제2동사의 관계를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도록 순차적 배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동태조사나 중첩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구문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 (55) a. 你们应该讨论讨论再做决定。
b. *你们应该讨论再做决定。

예문(56b)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두 개의 동사(서술어) 중에서 제1동사에 해당하는 ‘讨论’의 동작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시간과정인 ‘决定’이 존재함으로써 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문(誤文)이다. 즉 제1동사의 시간과정에 종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과정을 나타내

는 동태조사나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IV. 결 어

한어에서 ‘개사’의 출현은 동사의 허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동사의 허화는 단순한 ‘어휘의미의 허화’가 아니라, 통사기능에서의 시간성 상실과 더불어 서술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간성의 변화를 통한 동사의 서술능력의 상실은 문장성분의 통사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시간순서원칙’의 대비를 통해, 동사의 개사화 과정을 세 가지 각도에서 관찰하였다. 우선 개사화-동사의 허화-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사의 시간성의 상실은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사화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일차원성’의 적용은 대체로 제1동사의 허화를 통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둘째는 제1동사와 제2동사가 어떠한 시간구조를 가지는가를 관찰을 통해 시간성 상실과 어순변화의 관계를 설정한다. 즉 만약 제1동사와 제2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의 서술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제1동사는 제2동사는 연동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제1동사와 제2동사의 관계가 비순차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제1동사는 시간성 상실을 통해 개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제1동사의 허화 이후에 어떠한 기능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동태조사와 중첩방식의 적용을 통해 허화여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어의 「X+NP+V」구조에서 X의 시간성 상실을 통한 개사화는 ‘X+NP’가 단순히 상어라는 것 이외에, 술어의 행위동작이 일어나는 원인, 방식, 조건 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V+X+NP’구조에서는 ‘X+NP’가 표시하는 것은 결과나 장소로서 ‘X’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竟 成(1996) <汉语的成句过程和时间概念的表述>, (《语文研究》 제1기)
- 高名凯(1957) 《汉语语法论》, 北京 科学出版社
- 金昌吉(1996)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 戴浩一(1988)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黄河译], (《国外语言学》 제1기)
- 傅雨贤 等(1997) 《现代汉语介词研究》, 广州, 中山大学出版社
- 徐通锵(1990) <结构的平衡性和语言演变的原因>, (《中国语文》 제1기)
- 石毓智(1995) <时间的一维性对介词衍生的影响>, (《中国语文》 제1권)
- _____(2001) 《语法的形式和理据》,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石毓智·李讷(2001) 《汉语语法化的历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李英哲(1983) <汉语语义单位的排列顺序>, (《国外语言学》 제3기)
- 林华东·蒋艳(2005) <介词虚化与“V+介+NP”的述宾化趋势>(《汉语学习 2005》 第一期)
- 赵金铭 主编(1997) 《新视觉汉语语法研究》,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 陈光磊(2001) 《汉语词法论》, 上海 学林出版社
- 김정필(2006) 《현대한어 상어의 ‘화자주관성’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
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수송(1991) 《통합문법이론의 이해-어휘기능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임지룡 등(2004)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1990)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 pp.5-38.
- Traugott, E. C. (1995) *Subjectivisation in grammaticalization*, Stein.
D & Wright. S.(1995) pp.31-54.

<中文提要>

汉语中‘介词’的出现是通过动词虚化而形成的。动词的虚化是指词汇意义的丧失，这种虚化使动词的时间性丧失的同时，也使其述叙性减弱。如此动词的述叙能力的丧失引起句法功能的变化，而产生一种新的词类‘介词’。

本文通过时间一维性原则和时间顺序原则的对比来观察动词的时间性丧失，并从三个角度来考察由动词的功能转变而介词化的过程。首先，动词的时间性丧失是根据时间一维性原则来观察第一动词的虚化来显示出来的。第二，依据时间顺序原则来观察双重谓语句里第一动词和第二动词的排列顺序，如遵守时间顺序顺次排列则把其称为‘连动式’。与此相反，不遵守时间顺序而非顺次排列的时候，第一个动词成为介词构成‘介词词组’。第三，笔者从动态助词和重叠两个语法方式来证明‘介词’功能的虚化。用附加动态助词及运用重叠方式来检验介词的功能化程度，其结果是完全虚化的介词不能附加动态助词，也不能重叠。而非完全虚化的介词不一定附加动态助词，这可能是由于动词虚化之前附加的助词同时变成了功能性成分。

在以上的分析中，我们发现在‘X+NP+V’结构里‘X+NP’做状语时表示动作行为的空间背景，而在‘V+X+NP’结构里‘X+NP’是表示结果或终点的补语。从中可窥见对两个X产生新解释的可能性。

주제어 : 문법화, 허화,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 시간순서원칙, 개사화